

보도시점 2026. 8. 31.(월) 06:00
< 8.31(월) 석간 >

배포 2026 8. 28(금)

제1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 8.31(월) ~ 9.4(금), 베이징, 서비스·투자·금융 시장개방 협상 가속화 -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16차 후속협상이 8.31(월)~9.4(금)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중국측 천 차오(Chen Chao)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시(‘15년 발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하여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지금까지 1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다.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은 상호 서비스 개방 업종, 시장 진입 여건 명확화·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통해 서비스 무역과 투자 원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로써 양국 간 상품에 집중된 교역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므로, 후속협상의 진전은 양국 경제협력의 지속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월 양국 정상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고, 3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6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측 국제무역협상대표 간 회담 등 고위급 간의 교감과 협상 진전 방안에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우리측 대표단은 협상을 가속화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대내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시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정교섭관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3-5810)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담당자	사무관	진경휘 (044-203-5819)